

# 도시 은퇴자의 전문성과 경륜을 농촌 활성화의 핵심역량으로



김 주 숙  
농어업특위 위원

## 1. 먼저,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와 농촌자원 개발연구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의 심포지엄을 정말 필요한 시기에 개최해주심을 감사드리고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의 저의 주제 “도시은퇴자의 전문성과 경륜을 농촌 활성화를 위한 핵심역량으로”는 결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시인이 은퇴 후 농촌에 거주하면서 그 전문성과 경륜을 살려서 농촌생활을 활성화시키자는 생각은 오래 전부터 도·농 쌍방에서 구상되어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도시 가족이 주말농장을 찾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의 유행일 정도이고, 귀농본부가 있을 정도로 도시인의 귀농·귀촌도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도시은퇴자의 농촌에서의 성공담도 알려지기 시작했고 귀농자의 활동으로 특정 지역이 발전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2005년도에 농특위에서 출간한 「시골로 간 도시민의 삶 이야기」라는 책에는 농촌에 들어간 분들의 다양한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복합 산업으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례들,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공간을 찾아서 귀농한 전원생활과 은퇴 후 농촌을 찾는 사례, 농업으로 새 삶을 영위하는 다양

한 사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종교인들과 지역리더들의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그간 선각자들에 의해 실천되기도 한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아마도 도시은퇴자들의 귀농·귀촌의 의의를 다시 생각해보고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가능성을 다양하게 검토하자는 취지일 것으로서, 오늘 저는 바로 도시은퇴자인 저의 개인적인 상황과 생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2. 그리워하던 농촌에서 삶의 끝을 맞고 싶은 마음

저는 농촌여성과 가족을 연구해오던 대학교수로서 금년 2월말에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재직 중에도 항상 농촌생활을 그리워했으나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퇴직하여 자유스러운 연금생활자가 된 입장에서 농촌생활을 해 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으며 올 봄에도 몇 차례 시골에 다녀왔습니다. 시골에 오가며 생각은 역시 농촌에서 개인의 삶의 끝을 맞이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끝이 오기 전 노후 농촌생활이 이루어지려면 건강의 문제, 기타 여건 등이 맞아주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 가운데로 국도가 지나가는 등 시골 맛이 비교적 적은 동네이었습니다. 그래도 서울생활 47

년이 된 지금까지 동네 앞의 넓은 들녘 모습이 선연하고, 꼬불꼬불하던 신작로가 그림습니다. 지금은 도시화되어 시골 태가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둘러보기도 싫은 곳이 되었습니다만 마음의 고향은 간직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줄곧 내려갈 농촌을 찾아보고 있는데 마땅치 않습니다. 남편 고향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는 왜 지금도 농촌을 그리워할까요? 어릴 때의 추억 때문에? 마음의 고향이 농촌이어서? 공기가 맑아서? 도시의 복잡한 생활이 싫어서? 농촌풍광이 그리워서? 노후 생활비가 적게 들 것 같아서? 모두 맞는 말이었습시다만 저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농촌의 평범한 일상이 저를 이끄는 강력한 힘입니다.

시골 어디에서나 보이는 논과 밭의 곡식, 산등성이의 잡목, 심지어 논두렁의 잡초까지도 나에게 사랑스럽고 신비하며 자연 속의 생명의 법칙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들은 삶의 이치를 알면서 초연히 살아가는 듯 해 항상 허둥대는 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같은 풀과 꽃인데도 도시와는 풀 내음이 다르고 꽃향기도 다르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욕심으로는 일생 고달프게 산 육신을 자연 가까이에서 쉬게 하고 싶고, 야생풀들의 속삭임을 들으며 생태계의 신비를 즐기면서 살다가 세월 속의 한 점으로서 그리고 자연의 과정으로서의 죽음을 어느 날 받아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 은퇴자로서 역할을 해서 농촌에 기여해야 이 같은 행운을 갖게 될 것이라는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 3. 은퇴 후 삶의 구상 - 도시에서 하던 일마저 하기

도시에서 40년 이상을 살며 직장생활을 한 후, 이제 은퇴자로서 농촌에 돌아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 욕심 내지 말고 농촌에서 사는 일 자체에 가치를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해본다면 쉬운 일로 시작하고

서서히 적응하도록 해야겠지요.

우선 저는 농촌지역에 들어가면 잡초 뽑는 일만 기다릴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만, 아마 성격상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일은 계속해볼 것 같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가르치는 일,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작은 사회봉사를 권하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제가 농촌에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면, 사정이 있어 부모의 도움이나 학원의 도움을 못 받는 어린이들에게 공부를 도와주거나 방과 후 같이 놀면서 돌보아주는 일이 있겠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손자들이 읽던 동화책을 같이 읽자고 권해보고 한글을 모르면 가가거겨를 가르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농촌조사를 다니며 마을회관에 머물 때 서울에서 온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글을 배우겠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읍내 여성들에게 무료로 초급영어를 가르쳐볼 수도 있겠지요. 약간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과 접촉하면서 지역을 위해 그들이 하는 일을 거들 수도 있고, 마을 일에 의욕을 가진 여성을 찾아내면 그분을 도와 일이 잘 되도록 거들거나 새로이 할 일을 찾아보라고 할 수 있지요. 인근에 있는 외국에서 시집 온 여성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거나 그들이 낳은 자녀들의 한글 공부를 도움 일도 필요할 것입니다. 농촌여성학도 구상할 수 있겠지요.

도시 소비자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유기농산물 생산농민들을 지원하고, 도시 생협과 유대를 돈독히 하는 방안도 조언하겠지요. 물론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생협 조직도 시도해 볼 수 있겠지요. 도시소비자들을 농촌에 불러들이는 도·농 교류를 통해 도·농상생의 아이디어를 도시인들에게 현실로서 보여주는 일을 거들겠지요.

제가 서울에서 해오던 일을 변형해서 농촌지역에서 시도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주부들을 조직하여 가르치기도 하고, 취약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도 하고, 여성의 자아 찾기 프로그램 등 여성 발전을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 등을 농촌여성에게 맞게 적용해볼 수도 있겠지요. 농촌지역 여성들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일을 벌릴 수 있겠지요. 이런 일들은 제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서 서울 우리지역의 여성들을 조직하고 여성단체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적용해보고자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는 일에 지친 상태이기도 하고 신체적으로도 쉬고 싶다는 생각이 앞서지만 말입니다. 더구나 농촌을 어느 정도 아는 저로서는 뜻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많으며 무모한 큰 계획은 다른 일도 망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선뜻 시도하지 못 할 것입니다.

도시은퇴자가 귀촌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쉽고 농촌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일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 귀촌한다면 농촌아동들의 방과 후를 위해 자원봉사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아동들의 실력을 높이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겠지요. 문학 활동을 하던 분이 귀촌한다면 혼자서 글 쓰시는 일 외에도 가끔 농촌주민들과 어울리고 특히 농촌아동들의 감수성을 높여주는 기회를 만들며 결과적으로 그 마을에 문학의 향기가 퍼지도록 할 수 있겠지요. 화가일 경우 그림을 직접 그리며 농촌주민들에게 회화의 세계를 맛보게 해주겠지요. 음악인이 노후에 귀촌할 경우 농경음악을 발전시키고 주민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조직할 수 있어서 마을을 명소로 만들 수 있겠지요. 음악카페가 농촌에 못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별다른 직업 없이 살던 도시주부가 귀촌·귀농하여 노후를 보낸다면 학교 급식봉사, 어르신이 어르신 봉사하기 등 의외로 스스로 봉사하고 농촌주민들의 상호봉사를 이끌어 낼 많은 일을 쉽게 찾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들은 은퇴자로서 연금을 받든가 다른 소득원이 있어서 경제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주로 해당될 것입니다. 여기에 본인의 건강이 괜찮다는 전제하에 활동 가능한 연령대까지의 일들입니다. 어쨌거나 도시은퇴자들의 전문성은 농촌을 활기차게 그리고 정신적·문화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 4. 새로운 도전 - 제2의 인생 실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저는 살면서 엉뚱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생활을 구상해보는 일이었는데 이제 은퇴 후에 농촌에 돌아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학과 사회복지학이라는 사회과학 영역에서 일생을 살아온 저의 개인적인 관심사는 실은 생명·생태이었습니다. 저의 대학입시 때 의과대학 입학이 무시험으로 가능했고 권유를 받기도 했지만 저는 '사회의 의사'가 될 것이라는 호기를 부리며 사회과학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생활에서 재미있었던 과목은 생리학과 자연과학의 천체에 관한 강의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훗날 제 아들딸에게 임학과 유전학을 강권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저런 연유로 전공하지 않은 학과에서 23년간이나 가르치고 퇴직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교수생활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고 적응을 잘 하였지만 항상 마음 한 구석에 부족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 아쉬움을 재직 중에는 농촌여성연구로 메꾸었는데 대학에서 한 과목도 가르치지 못하는 연구영역인 농촌여성과 농촌가족을 계속 연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저는 실증적인 농촌조사를 많이 해서 보고서를 많이 썼는데, 농촌조사를 계획하고 조사과정에서의 고생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연구 그 자체 지적 호기심 외에도 실은 조사기간 동안 농촌에 머물며 농촌의 곡식과 잡풀들과의 교류 속에 있었고 이것은 저 혼자만의 오랜 비밀입니다. 은퇴한 지금 농촌으로 돌아가면 한동안은 제비풀과 대화를 나눌 것이고 비탈의 아카시아 나무와도 친하게 지낼 것이며 벗잎들과는 농촌문제를 토론할 것입니다. 나의 제2인생의 꿈은 사실 이런 있는 듯 없는 듯한 사소한 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저와 비슷한 비밀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소득을 얻는 직업생활 뒤편에 감추어진 속마음이 따로 있고, 개개인들에게는 깊이 감추어 둔 뜻을 이루지 못해서 오는 가슴저림의 경험

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보고 싶었던 어떤 일을 생계를 버느라고 또는 직장에 충실하느라고 못 해 보았거나 미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은퇴한 시점에서 각자 간직해온 비밀스런 마음을 현실화한다면, 해보고자 원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던 숨은 꿈을 실현해보려고 노력한다면 이것이 곧 제2 인생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아닐까요?

오늘 사례발표 하실 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신문기사에 제2인생을 실현하신 분의 기사가 많이 나고 있는데 대부분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은퇴 후 친환경녹차 다원을 경영하신다거나, 펀드 매니저가 초지를 만들고 소를 기르며 전원의 낭만과 인생 참 맛 느꼈다거나, 농촌 폐교에서 친환경농업을 하고 생태적인 삶을 실천한다거나,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종교인들의 귀농 후 성공한 많은 사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실패한 경우의 이야기는 별도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공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왜 도시에서 그렇게 살았던가? 이렇게 좋은 것을' 입니다. 농촌이 그냥 좋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삶이 달라졌다는 것, 이것이 새로운 자기의 삶인데 실은 직장생활하면서 내면에 감추어두었던 자기의 꿈의 실현이라는 것, 즉 진실로 자기가 원하던 삶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더 이상의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 5. 농촌 활성화와 도시은퇴자의 역할

은퇴자의 귀촌이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고 축복 받은 삶이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생활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퇴자들의 새로운 삶은 개인적으로는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그들의 삶은 곧 농촌지역사회와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관계, 즉 개인들의 제2 인생 실현이 농촌 활성화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도시 은퇴자의 농촌에서의 제2의 삶은 개인에게는 의미와 보람을 주고 농촌에는 지역사회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농촌 상황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위기입니다. 산업화과정에서 오래도록 정책적으로 밀리고, 인구조차 도시화 속에서 빼앗겨 온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고 초고령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으니 산업경쟁력과 인구재생산면에서 이미 자생력을 잃은 사회가 아닌가 염려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WTO체제하에 농산물 수입조치 등은 농업인을 거의 무기력상태로 내몰고 있습니다. 농업이 숨 죽으면 농촌이 시들해지고 농촌이 시들시들 죽어가면 도시인들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도·농사회는 목숨이 서로 얼킨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적극적인 농업·농촌 정책이 시도되겠습니까만, 그 문제는 별도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며, 오늘 강조할 점은 무너져 내리는 농촌사회에 유입되는 도시은퇴자는 농촌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요소라는 점입니다.

## 가. 도시은퇴자의 전문성은 농촌의 새로운 자산입니다.

교육수준이 높고 다양한 분야의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은퇴자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본인의 전문성을 부분적으로라도 발휘할 기회를 갖게 된다면 농촌으로서는 귀중한 인재를 영입한 셈이 됩니다. 교육자, 성직자, 연극인, 건축가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노후를 농촌에서 보내겠다고 결심한다면 농촌지역 인적 구성이 다양해진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서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분들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자기 영역의 일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농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주민의 만족에 그치지 않고 곧 바로 농촌의 관광자원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 유명인사가 살았던 역사로 관광자원화 되는 마을이 많습디다만 그러한 역사를 갖지 못한 농촌지역은 현역 인물의 도입으로 마을이 유명해지고 관광자원화 됩니다. 강원도 한 마을의 소설가 이외수 거주 효과가 그 한 예입니다.

## 나. 봉사 인적자원의 확충 기회입니다

농촌에 정착한 은퇴한 전문가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한다면 이는 그 농촌지역에 새로운 영역의 일이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소설가가 존재함으로써 외부 독자들에게 마을이 알려지게 되고, 그 소설가의 간단한 행위가 독자들을 마을로 불러들이게 되며 마을의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이런 효과는 소설가에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기존 마을에서 옷감 천연 물감들이기로 유명한 마을도 있고 책을 많이 볼 수 있다는 목적으로 유명한 책 마을도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일했던 은퇴자들은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자기들이 일했던 분야를 농촌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여 농촌 활성화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협조, 행정담당자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과정의 귀찮은 일들은 그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유명한 은퇴자만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은퇴자들도 각자 보람 있는 일로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많지 않은 농촌아동들을 돌보아주고 농촌아동 성장에 도움을 주는 교사출신 혹은 주부출신 봉사자가 있다면 농촌에서 아이 낳아 기르는 일이 그다지 겁나지 않게 될 것이고 도시의 부모들도 부러워할 것입니다.

**다. 도시문화의 유입은 농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요구할 겁니다.**

은퇴자들을 통한 새로운 생활문화의 도입은 농촌에 혼란과 갈등을 가져올 수 있으나, 이 또한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 문화에서 외부문화의 유입이 결코 부정적인 효과만을 결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은퇴자들의 생활방법, 사고방식 등은 농촌주민과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농촌주민의 생활에 혁신적 요인으로 자극이 되고 도시·농촌문화 및 사고방식의 접촉·갈등·통합 과정을 통해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농촌주민의 전반적인 사회조직의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갈등현상이 지나치게 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극복과정 자체가 농촌주민생활의 변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농촌은 진보가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협동의 미덕에 현대인의 합리성을 보태서 결과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확대해나가는 길만이, 그리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를 도·농이 힘을 합쳐 수행해 나감으로써 이 위기를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도시민의 농촌유입은 결과적으로 농촌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됩니다.**

도시 은퇴자들이 많이 농촌에 들어올수록 좋고 판단됩니다. 그들 중 일부는 농촌지역을 이해하지 못해 역기능적 관계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농촌유입인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 현재 저의 판단입니다. 일정 소득이 보장되는 노인인구라면 많아서 농촌에 불리할 것이 없겠습니다. 많은 노인 인구는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센터 등 새로운 사회복지 시설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인데 이는 동시에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노인인구는 젊은 인구를 필요로 하고 잘 하면 젊은 층의 농촌유입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녀가 딸린 젊은 경제활동인구가 농촌에 들어오면 보육기관 설치 등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 내게 되고 이 순환이 결국 농촌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비단 도시은퇴자의 정주형태가 아니라 주말 체재의 경우에도 농촌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농촌지역 지자체들이 도시은퇴자를 위한 농촌 정주공간 확보나 혹은 도시인들의 주말농장 활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 주말농장에 도시인들을 끌어들이는 일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구매력을 활용하는 제도를 만들고 주말 도시인과 농촌주민의 합동행사로 농촌에 활력을 주고 나아가 언젠가는 그들이 농촌에 귀향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6. 농촌주민과 농촌행정당국의 주도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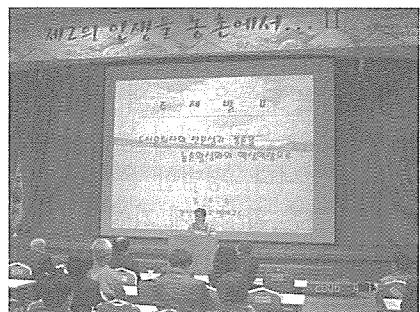
약간의 예외자는 있겠지만 전문성을 갖춘 도시 은퇴자가 농촌에 올 때는 이미 농업·농촌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농촌사회문제에 마음 아파하며 가능하면 어느 정도 농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어보겠다는 의지를 가졌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농촌 활성화의 핵심역량으로 자리 매김 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프로그램인데, 여기에는 농촌주민과 농촌행정당국의 세심한 배려와 주도성이 요구됩니다.

흔히 은퇴자 혹은 귀농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농촌주민과의 갈등이 없도록 하는 주문과 비판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농촌주민들이 성숙한 자세로 도시은퇴자의 귀촌을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농촌주민이 선도적으로 도시은퇴자를 받아들이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농촌주민의 주도적 자세가 도시은퇴자 농촌귀환의 성공요건입니다. 농촌지도자들과 행정당국이 세심하고도 치밀한 전략으로 도시은퇴자를 유인하고 그들의 활동공간을 넓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을 지도자, 지역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훈련을 받아 통합적 지도력을 갖춘 농촌지도자, 주민간의 갈등과 주민-귀촌자의 갈등을 조절·해결할 줄 아는 농촌지도자, 도시인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해안을 가진 농촌주민들, 중앙정부의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자세히 파악할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실상 도시은퇴자의 귀농·귀촌, 그리고 역할 수행을

위해 농촌주민과 농촌 남·녀 지도자들의 인간관계 훈련, 갈등조절능력 훈련, 민주적 지도력 교육, 조직운영과 민주적 리더십 훈련, 회계투명성을 위한 실천교육 등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준비된 농촌주민과 농촌행정당국이 대등하게 만나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일을 의논하고 추진할 수 있을 때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이 제대로 시작될 수 있고, 이러한 거버넌스 개념은 준비된 농촌주민과 준비된 도시은퇴자가 만날 때도 다시 적용될 것입니다. 도시은퇴자들이 농촌 활성화의 핵심역량으로 힘을 발휘하게 될 날을 축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하는 김주숙 농어업특위 위원



심포지엄 참석자 광경



## 친환경우렁이미생물농법 무농약인증쌀 판매안내

부안군 동진면 김보영 통일회원의 친환경우렁이미생물농법 무농약인증쌀 판매를 안내합니다.  
 생산품목: 친환경우렁이미생물농법 무농약인증쌀  
 대표자: 김보영  
 주문전화: 063) 583-4966, 011-9643-4966  
 주소지: 전북 부안군 동진면 인정리 643  
 홈페이지: parmer.hihome.com